

분야별 걸작 기획도서 해제5

사상전집 및 단행본형 기획물

지식인들 인기 끈 교양강좌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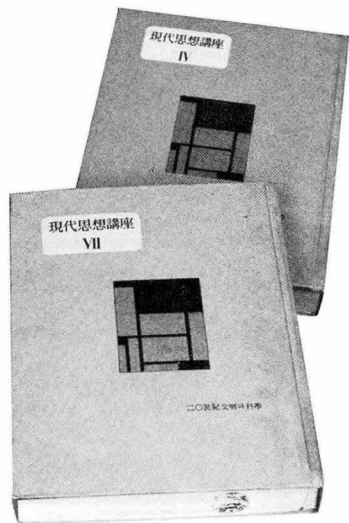
동양출판사 「현대사상강좌」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60년도에 발간,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직까지도 이를 능가할 교양기획시리즈는 없다”고 회자될 만큼 뚜렷한 명성을 얻고 있는 ‘걸작’ 기획 가운데 하나다.

이 전집은 철학서가 주종을 이루는 대개의 사상서와는 달리 철학을 위시한 예술·사회·종교·윤리·과학 등의 근본적인 사상의 과제들에서부터 정치·경제·법률문제를 비롯하여 인간학·현대지성·문화문제·독서문제 등 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전영역을 포괄하면서 지식인들의 당면 문제들을 풀어나간 거대한 현대사상의 구조물인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전체를 10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각기 한권의 책으로 묶는 한편 전체가 일관된 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現代人의 世界觀」 「知性과 모랄」 「讀書과 學問에의 길」 「現代藝術에의 招待」 「懷疑와 宗教」 「現代社會의 構造」 「20世紀文明과 科學」 「現代生活과 文化」 「現代思想家 30인」 「轉換하는 現代思想」으로 이루어진 이 강좌는 각 권이 다시 20~30개의 세부주제로 나뉘어 각 테마마다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교수에게 집필토록 하고 있어 이 기획에 기울인 편집진의 열정과 사명을 엿보게 한다.

“해방후 15년 동안 급격히 밀려들어온 현대사상의 조류를 우리 학자들의 손으로 재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강좌의 기획은 당시 과학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 장삼식(작고) 씨와 서울대 문리대 언어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편집장 全泳杓(신구전문대



출판과) 씨가 전체의 열개를 잡고 김기석 김형석 백철 성장환 이승평 이종진 황산덕 교수 등 7명이 책임편집위원으로 참가하여 4·19가 나던 1960년 1년 동안에 걸쳐 완간되었다.

그해 1월 첫째권을 내놓았을 때 1주일만에 재판에 들어갈 만큼 화제를 모은 이 전집은 전 10권으로 완간되고는 몇만질이 팔려나갈 만큼 호응을 얻었다.

“현대사상강좌에 글을 못 쓰면 대학교수가 아니고, 현대사상강좌를 들고다니지 않으면 일류대학생이 아니다”는 말이 유행했을 만큼 화제를 모았던 이 전집은 이후 교양강좌 시리즈의 붐을 조성하는 한편 그해 7월 채 완간도 되기 전에 제1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입증했다.

동서양 망라한 국내사상전집의 ‘얼굴’

삼성출판사 「세계사상전집」

인류역사의 정신사를 떠받쳐온 위대한 고전과 명저들을 짜임새있게 구성한 국내 사상전집의 대명사격이다. 대학생이 있는 집에는

적어도 한두권의 날권이라도 있을 만큼 폭넓게 보급되어 있을 만큼 인기를 누린 사상전집이다.

애초에는 모두 60권으로 계획, 76년 3월 처음 10권을 내놓은 후 단계적으로 10권씩 펴내 1년여가 지난 77년 6월 50권으로 1차 완간했다. 그리고 5년뒤 82년 본디 계획에서 4권이 모자라는 56권으로 최종완간했다.

기왕의 사상서 번역이 대부분 일본어 중역이었던 반면, 이 전집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원서번역으로 나온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당시의 다른 사상서들에 비해 문장이 다소 딱딱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신일철(고려대) 이용희(전 서울대) 이어령(당시 이화여대) 오화섭(작고·전 연세대) 등 4인이 상임편집위원으로, 권영대 박중홍 이만갑 조기준 등 모두 11명으로 편집위원을 구성, 72년부터 기획에 들어가 4년여의 작업끝에 첫선을 보였다.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인류의 정신을 성숙시키고 확장시켜온 동서양의 주요 사상서를 우리의 주체적 관점에서 가려 뽑아 새롭게 체계화시켜 놓음으로써 이 56권을 통해 동서고금의 사상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목록의 선정을 위해 전국의 각 대학에 앙케이트를 띄워 해당교수들의 추천을 먼저 받고, 그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을 모으고, 이를 뼈대로 다시 보완시키는 등 특히 책선정 작업에 심

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이 전집은 크게 동양사상, 서양사상, 한국사상 편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우리전통사상의 원류로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四書集註」 「老子」 「莊子」 등이 앞엿목록을 차지하고 있고, 플라톤에서 말리노프스키까지 고전과 현대에 걸쳐 서양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명저를 포괄한 서양사상 부문은 이 전집의 대종을 이룬다. 그리고 통일신라기의 원효에서 근대의 한용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저술을 「實學思想」 「佛敎思想」 「民俗·宗敎思想」 「近代思想」 등으로 분류, 체계화한 한국사상 부문을 이 전집의 뒷부분을 이루면서 민족문화의 정수를 요령있게 집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권마다 해당분야의 권위자인 역자들의 충실한 ‘해설’을 덧붙였으며 난해한 용어마다 꼼꼼한 주석을 다는 한편 저자연보, 자료화보 등도 실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써 제18회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다. 또한 초판의 양장본에서 표지와 판형에 변화를 주고 종수도 일반독자가 접하기 좋도록 36권으로 줄여 다양한 보급판을 만들어 내놓는 등 공들여 만든 만큼 읽히는 책이 되도록 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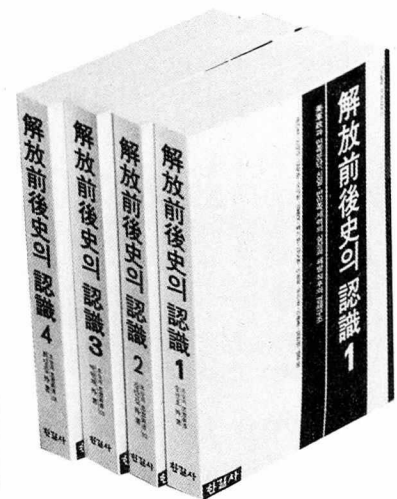
인식론적 지평 바꾼 현대사연구서

한길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79년 10월 제1권이 출판돼 초판 5천부 가운데 4천5백부가 팔려나가면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던 이 시리즈는, 연구자 60여명이 필진으로 참여, 발간 10년만에 여섯권으로 완간돼 해방후의 우리 역사학과 사회과학계가 이룩해낸 큰 업적으로 평가받은 현대사연구서이다.

첫권의 발간으로 ‘해방전후사’라는 용어를 우리시대의 보편적 사회과학용어로 정착시키며, 출간됨과 동시에 한국현대사연구의 주춧돌로 평가받은 것은 물론 이 분야의 입문서이자 필독서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시리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식론적 지평을 잘 드러낸 송건호씨의 권두논문 「8·15의 민족사적 인식」 등이 실린 제1권이 1세대 학자들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면, 2권부터는 젊은 연구자들이 대거 필진에 참여



하면서 해방전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부장님!

월급은 169만 366원입니다.

(세금 공제 전, 상여금 포함, 4인 가족인 경우)

“
주 5일제 근무고요,
월차, 연차 휴가에 여름 휴가도 9일이나 된답니다.
(5일 휴가에 앞뒤로 주말이 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책, 알찬 책을
정성들여 만들겠다는 철학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교의 계열사라니 더 믿을 만하죠.
”

1. 모집 부문 및 응시 자격

모집부문	담당 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
출판·편집	편집부장 (단행본·아동도서)	1명	• 편집부장·편집장: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분 • 사진기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분 • 취재기자: "	서울 (사당 전철역 3분 이내 거리)
	편집장 (월간 어린이 잡지 나이테)	1명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분 •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신 분 (전공 제한 없음)	
사진기자	나이테 기자 (월간 어린이 잡지)	1명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되신 분 ※단, 취재기자는 자유기고가(프리랜서)로 일할 분	
취재기자	"	○명		

2. 전형 방법

- * 1 차: 서류 심사 및 실가 시험
- * 2 차: 면접

3. 제출 서류

- * 이력서 1 통 * 사진: 4×5cm 3 장

4. 접수 기간

- * 91년 7월 22일(월) ~ 8월 9일(금)
(10:00~18:00,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접수 처

-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 세원빌딩 5층
(주) 대교출판

6. 기타 사항

- * 업무 내용과 세부 사항은 주식회사 대교출판
전화 (02) 588-8806, 8807로 문의 바랍니다.



문화 등에 대한 실증적 해명을 깊이있게 논의한다.

87년에 나온 제3권은 보다 민중주체적이고 민족주체적인 관점을 담아내고 있는데, 당시의 학문내외적인 흐름과 사회적 조건이 마주치면서 한국현대사 연구의 활력을 더해주는 구실을 했다. 이후 출간된 4~6권의 연구시기와 범위·주제는 해방3년사에서 해방8년사까지로, 남한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탈피해 북한을 수용하는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제4권에서는 해방 8년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5권에서는 북한의

혁명전통·인민정권의 수립·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내용과 전개, 해방직후에 나타난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북한의 여성정책·문학 등이 일차자료에 근거해 해명되고 있다. 또한 제6권은 남북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입장과 쟁점에 대해 종합 정리한 '쟁점과 과제' 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이 갖는 핵심적 의미는 80년대라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어렵사리 탄생된 사회과학 출판의 성과였을 뿐만 아니라, 금기시돼온 해방전후사에 대한 인식작업과 연구를 과감하게 다룬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은 기획이었다.

오랜 세월 공들인 사진다큐멘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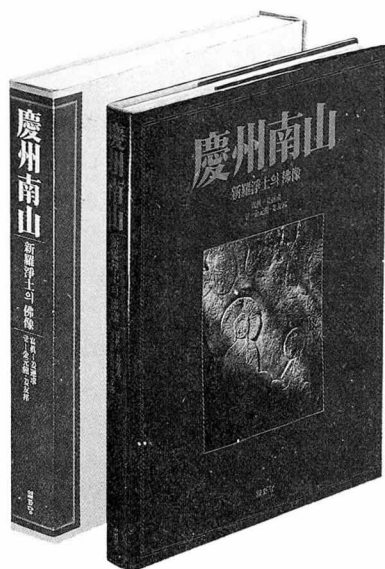
열화당 「경주 남산」

1천년 신라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어 흔히 '야외조각장'으로 불려지는 경주의 남산을 영상에 담은 사진집. 4년여에 걸친 사진작가 강운구씨의 사진작업과 서울대 김원룡교수의 총론, 강우방씨의 도판각론이 어울린 일종의 사진다큐멘터리집이다.

경주분지 남쪽에 자리잡은 남산(468고지)은 동서 4km 남북 8km의 거북등을 닮은 형상을 한 산으로, 화강암으로 뒤덮여 있는데 7~10세기의 신라인들이 조성했던 55개소의 절터와 38기의 석탑 59체의 석불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산 전체가 유적지로 알려진 명산.

북디자인너 정병규씨가 편집을 맡은 이 「경주남산」에는 신라 '노천법당'의 절묘한 형상이 옮겨져 있는데, 사진작가 강운구씨는 날씨와 각도에 따라 그 모양새와 맛이 변화하는 남산의 불상들을 촬영하기 위해 4년에 걸쳐 8천컷이 넘는 사진을 찍었으며 이 가운데 1백50여장을 엄선해 실었다.

4·6배판 크기에 250여면의 이 책은 사진촬영과 편집만이 아니라 제작면에서도 호화양장본으로 꾸며져, 87년 출간 당시 단행본으로는 가장 높은 책값(10만원)이 책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원로고고학자 김원룡씨의 '남산 불적의 미'와 강운구씨의 도판, 그리고 강우방씨의 '경주 남산론', 도판목록, 경주남산 불적 배치도로 구성된 이 책에는 남산의 한구석에서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불상 20여점의 사진도 함께 수록돼 있어 '신라정도의 불상'이라는



부제가 실감나게 한다.

자연의 풍광과 잘 조화된 암각불상의 모습을 고된 작업의 반복을 거쳐 영상화했다는 점과 고정된 우리 문화재를 개별적 수용자인 독자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가 각별한 「경주남산」은, 기왕의 문화재 도록이나 미술전집이 틀에 박힌 형식으로 제작된 데 반해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이 또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 치밀한 현장답사를 통해 충실하게 제작된 이 책은, 우리의 자랑거리인 문화재를 책으로 복원, "사진으로 쓴 민족서사시"였다는 것이 작가 조세희씨의 평이다.